

11월 12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1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실적악재→R우려↑ 뉴욕 이틀째 하락 [다우: 8,693.96pt (-1.99%)]	서킷시티의 파산에 이어 스타벅스와 톨 브라더스 등 개별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이 잇달아 전해진데다 제너럴모터스(GM) 추락이 계속되면서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가 고조. 급락세로 출발한 주요 지수는 오후 들어 미국 정부의 주택시장 지원책 발표를 호재로 반짝 낙폭을 줄이 기도 했으나 장 막판 다시 낙폭을 키웠음.
GM 추락 어디까지..`65년 최저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블루칩 가운데 최대 낙폭을 기록. 닷새 연속 하락 행진을 지속한 GM은 13.1% 급락 2.92달러로 마쳤고 이는 지난 1943년 2월 이후 최저가임. 현재 GM은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빅2, 모기지 연체자에 원금유예-금리인하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주택차압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수 십 만명의 모기지 연체자들의 원금을 유예하고, 금리를 인하 해주는 등 모기지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음.
유가, 60弗 하회 마감 [WTI: \$59.33 (-\$3.08)]	국제 유가가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 우려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원유 수요 하향 전망으로 60달러 아래로 내려섰음.
달러, 엔 대비 하락..`R 우려↑→증시↓`	기업 실적악화로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가 고조되면서 뉴욕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무게가 실려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엔에 대해 하락.
유럽, 금융보다 실물 경제 침체 우려	유럽 주요 증시가 3일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 금융주와 원자재 관련주 등이 순익 전망 악화로 하락세를 주도.
중국증시, 경기부양 우려로 하락	11일 중국 증시가 금융주와 소비관련주 주도로 하락 마감. 이날 증시 하락에는 정부의 4조위안 규모 경기부양책이 경기침체를 막는데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반영.
GM대우차, 내달 22일 부터 전 공장 가동중단	GM대우차가 다음달 22일부터 열흘간 전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예정.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데다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의 소비자 대출 제한 등으로 판매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피치 韓 금융사 등급 전망 대거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거의 모든 한국 금융사들의 장기 외화 발행 자등급에 대한 등급 전망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 이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임.

제목	주요 내용
쌍용건설 최종인수價 협상시한 다시 연기	쌍용건설 매각 작업이 또다시 늦춰질 것으로 보임. 이는 동국제강은 건설사 상황이 안좋은 점을 들어 할인폭(5%) 이상의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캠코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中企 지원않는 금융기관 제재 검토중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중소기업 자금지원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내부적으로 검토중.
서킷시티 파산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운데 국내 전자유통업계는 용산 전자상가 등 폐업업체 늘어.
FX 스왑 입찰관련	낙찰포인트 -1,324전..34.5억弗 응찰해 20억弗 낙찰.
대우차 판매 ABCP	1,200억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상환위기, 800억원 현금 상환, 850억 리파리넨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